

- 주요 뉴스: 주요 동인 부재 속 제한적 움직임. 재정·통화정책 기대감 유지
 - 아랍, 對미국 핵 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훈련 실시
 - 일본 '25.4분기 GDP(+0.2%) 부진, 다카이치 총리와 BOJ 우에다 총재 회동
 - Goldman Sachs, 지난주(2.9~13일) 헤지펀드의 대규모 亞 주식 순매수 관측
- 국제금융시장: 주요국 증시 휴장(음력설 등). 일본 GDP 부진 등에 일부 반응
 - 미국 S&P선물 강보합(+0.1%), 달러화 강세(+0.2%), 금리 보합(0bp)
 - 주가: 미국은 휴장(대통령의 날). S&P500선물은 금리인하 기대 회복으로 소폭 상승
유로 Stoxx600은 AI에 대한 우려가 일부 희석되면서 소폭 상승(+0%)
 - 환율: 달러화지수, 일본 GDP 성장을 예상치 하화에 따른 엔低로 상승
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0.1% 약세, 엔화는 0.5% 약세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대통령의 날 휴장으로 불변(4.05%)
독일은 경제지표 부진(유로존 '25.12월 산업생산 1.4% 감소)으로 1bp 하락

※ 뉴욕 1M NDF 증가 1442.68원, 13일 뉴욕 NDF 증가 대비 2.75원 상승. 한국 CDS는 보합

		2.16일	2.13일	전일대비			2.16일	2.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휴장	6,836.2	-	국채 금리 10y	미국	4.05%	4.05%	0bp
	유럽		618.52	+0.13%		독일	2.75%	2.76%	-1bp
	중국	휴장	4,082.1	-		영국	4.40%	4.42%	-2bp
	일본		56,806	-0.24%	CDS 5y	한국	22bp	22bp	-0bp
	한국	휴장	5,507.0	-		중국	43bp	43bp	+0bp
환율	달러지수		97.07	+0.16%	위험 지표	EMBI+	-	263	-
	유로화		1.1851	-0.14%		VIX	21.2	20.6	+2.91%
	엔화		153.47	-0.50%		WTI유	63.73	62.89	+1.34%
	위안화	휴장	6.9049	-	원자재	구리	576.3	580.3	-0.70%
	원화	휴장	1,444.9	-		금	4,992.1	5,042.0	-0.9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음력 설 주요 동인 부재 속 제한적 움직임. 재정·통화정책 기대감 유지

- 금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(대통령의 날)·중국(춘절 연휴) 등 주요국 휴일 등으로 새로운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주식·채권가격 변동폭 제한(S&P500 선물 +0.1%)
-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(2.13일, +2.4%)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는 등 주식 시장에 긍정적 배경이 조성되는 분위기. 단, KBC Securities는 對AI 익스포저에 따른 차별화, JPMorgan은 AI의 “식인화^{cannibalization}” 등에 대한 주의를 촉구
- 일본 `25.4분기 GDP 부진(2.16일, +0.2%)에도 불구하고, Edmond de Rothschild 자산운용은 다카이치 내각이 총선 압승 이후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안전한 권한을 확보한 만큼 일본 주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이란, 對미국 핵 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사훈련 실시

- Reuters 등은 이란 언론을 인용해,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(IRGC)가 미국과의 핵 협상*을 앞두고 해군 부대 준비태세 점검 목적의 “호르무즈 해협의 지능형 통제”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. 이에 앞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의 중동 추가 파견을 결정하는 등 협상 재개 국면 속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동반 고조되고 있는 양상

* 2.6일 오만 1차 협상 이후 2.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두 번째 협상 예정

-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IAEA 사무총장과 회동하면서,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제네바에 왔으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. 한편,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은 합의를 도출할 기회는 있지만 성공을 자신하기는 어렵다고 발언

■ 일본 `25.4분기 GDP 성장률 부진, 총리-中銀총재 회동
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`25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+0.2%(연율)로, 역성장(3분기 -2.6%)에서는 벗어났으나 예상치(+1.6%)를 크게 하회. 세부 항목 중 민간재고(-0.8%p)와 공적투자(-0.3%p)의 감소가 낮은 성장률 기록의 주된 배경
- BOJ 우에다 총재는 총리 회동 이후, 일반적인 경제·금융 상황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을 뿐 통화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요청은 없었으며, BOJ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언급

■ Goldman Sachs, 지난주 헤지펀드의 대규모 표 주식 순매수 관측

- 당사의 Prime Services(프라임 브로커리지)가 집계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아시아 신흥·선진시장 주식 순매수가 집계 이래(16년~)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. 해당 지역은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순환매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 달러화 약세에도 반응하면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

■ 유로존 생산활동, '25년말 부진 이후 '26년초 반등 기대

- Eurostat는 '25년 12월 유로존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.4% 감소(계절조정)했다고 발표(EU는 -0.8%). '25.4월(-2.6%) 이후 가장 큰 감소폭에 해당하며, 산업군별로는 자본재(-1.9%)에서, 국가별로는 독일(-2.9%)에서 두드러진 감소 폭이 확인
- ING는 유로존 천연가스 가격과 대미 관세가 높게 유지된 만큼 금번 감소는 예견된 결과로 평가. 최근 독일 공장수주 호조를 근거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 개선을 예상

■ 태국 GDP, '25.4분기 성장 예상 웃돌면서 年 2.5% 성장

-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(NESDC)가 발표한 '25.4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+2.5%로 시장 예상(Bloomberg +1.3%)을 큰 폭 상회. 전분기 대비로는 +1.9% 성장('24.4분기+2.5% 이후 최고)했으며, 지난 4분기 연속 둔화(또는 횡보) 이후 첫 반등
- 재무장관은 태국 경제를 “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환자”로 비유하며 '26년에는 3% 성장을 희망. 단, Capital Economics는 재정 주도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제기

■ 인도 무역수지 적자 확대. 미국 관세 外 금값 폭등과도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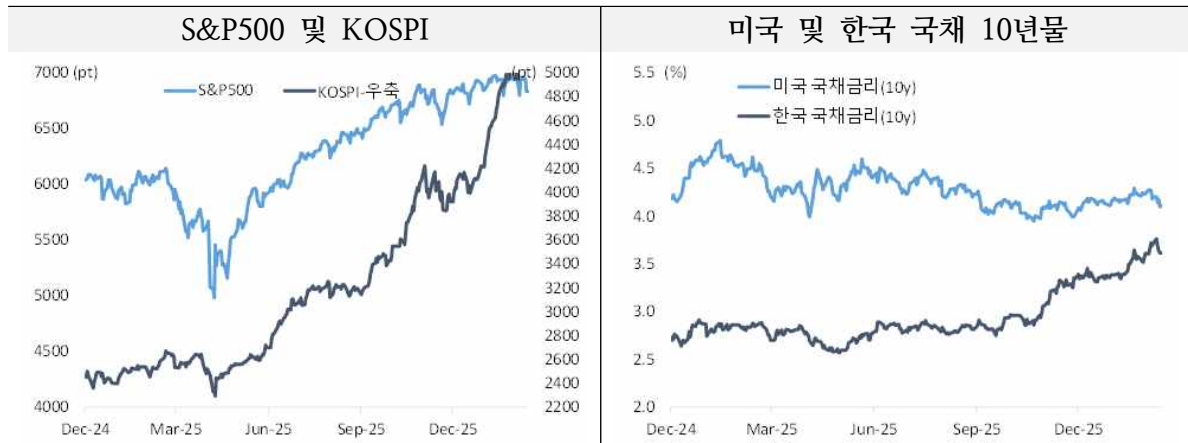
- 대외무역총국(DGFT)이 발표한 1월 무역수지는 \$346.8억 적자(3개월래 최대). 고율 관세(50%)에 따른 대미 수출 부진(-4.5%_{mom}, \$65.8억)에도 기인하나, 금 ETF로의 자금유입 급증과 관련한 실물 금 수입* 증가(+192.3%_{mom}, \$120.7억)가 주된 배경

* 인도 내 금 ETF 설정잔액(또는 순자산총액) 증가 시, 기초자산 가치 보장을 위한 실물 금 매입 수요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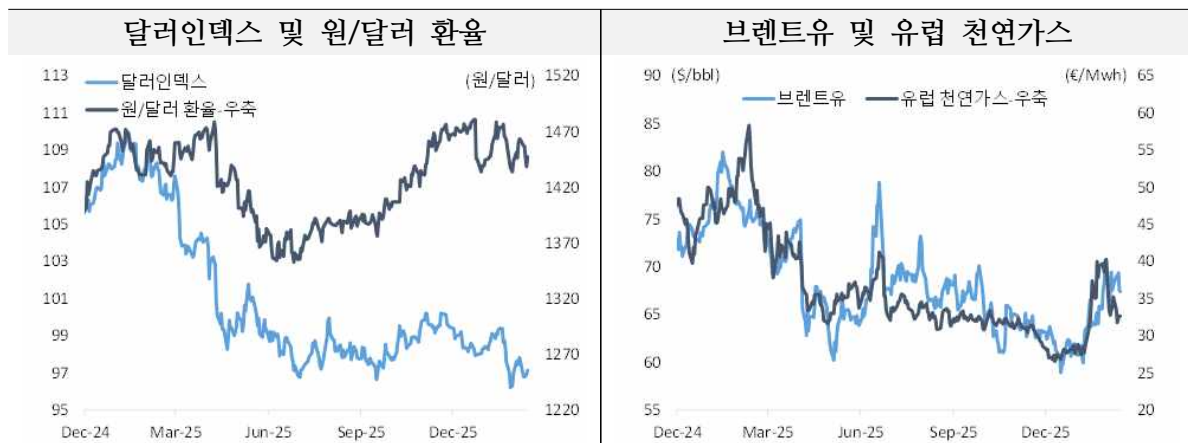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·금융 이벤트

- 중국·홍콩·대만·싱가포르·말레이시아·필리핀·베트남 등 휴장(음력 설날)
- 미국 2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(전월 7.7, 예상 6.2), 독일 1월 CPI(+2.1%, +2.1%), 2월 ZEW 경제심리지수(59.6, 65.2), 영국 12월 실업률(5.1%, 5.15%) 등 발표 예정
- 연준 바 이사,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, ECB 데 쿼도스 부총재, 에스κρι바 정책위원(스페인)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, 미국-이란 핵 협상(이상 현지시간 2.17일 기준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